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

[HOME \(/\)](#)    [로컬+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7\)](/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7)  
[sc\\_sub\\_section\\_code=S2N87](#)

[경기 \(/news/articleList.html?](/news/articleList.html?)

# '경기도 DMZ 연천'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

김명호 기자 | 승인 2021.10.26



26일 연천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신규 여행상품으로 만들어진 연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트레킹 여행상품은 외신기자들과 함께 아우라지베개 용암에서 출발 백의리 층에 도착하는 여행상품으로 예약율이 높다. 현재 네이버스토어(네이버페이 결제 가능), 쿠팡에서 예약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1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코스에 참여한 A씨(28)는 “지난해 연천에 방문한 기억이 너무 좋아 다시 한번 연천을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연천관광지가 처음이라는 외신기자들은 “지질공원 해설사 선생님의 트레킹 코스 해설은 해외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 연천관광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늘 함께하며, 지속가능한 ‘경기도 연천만의 관광’을 만들어 나간다. 또 타 지역에서 느낄 수 없는 지역주민 ‘명품해설’, 이제 곧 30년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의 넘버원 전곡선사유적지 ‘구석기축제’, 전세계인이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평화관광 ‘DMZ’,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생태관광, 지구의 역사를 확인하는 지질관광은 앞으로 연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욱 큰 기쁨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